

위기 속 ‘흔들’… 호랑이군단, 순위 반등할까



나성범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가을야구 진출을 위한 순위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SSG랜더스와 경기에서 위닝시리즈를 달성한 뒤 주말 kt위즈에게 루징시리즈를 당했다. 그 결과 57승 4무 61패 승률 0.483으로 승패마진 -4를 기록했고, 순위는 8위에 머물렀다.

프로야구 2025 정규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현재 가을야구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순위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20경기 안팎을 남겨두고 선두권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리그 1위 LG트윈스가 리그 2위 한화이글

나성범도 24경기 77타수 27안타 4홈런 13타점 타율 0.351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 중반까지 컨디션 난조를 겪어왔던 나성범이지만, 7월 말부터 타격감을 회복했다.

김호령은 24경기 84타수 25안타 4홈런 11타점 타율 0.298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압도적인 중견수 수비를 자랑하는 그는 물오른 타격감까지 선보이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 10경기에서는 타율 0.395의 호성적을, 지난주로 좁혀보면 6경기에서 0.435이라는 불방망이를 뽐냈다.

이외에 오선우 등이 타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제는 마운드다.

지난달 경기 기간 평균자책점 9위(5.17)에 머물렀다.

이번주 한화·SSG·kt·NC와 잔여경기 돌입

승률 0.483 리그 8위…5위 삼성과 3.5게임차

스와 5.5게임차를 기록 중이다. 한화 역시 3위 SSG와 8게임차로 벌렸다.

하지만 3위부터 6위까지는 매 경기 순위가 바뀌는 단두대 매치를 펼치고 있다.

SSG(승률 0.513)와 4위 롯데자이언츠(승률 0.5124), 5위 삼성라이온즈(0.5122)는 게임차 없이 승률로 위치가 같았다. 6위 kt는 이들을 0.5게임차로 바짝 쫓고 있다.

7위 NC다이노스 역시 5위를 2.5게임차로 추격 중이고, KIA의 경우 3.5게임차로 가을야구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KBO리그가 이달부터 잔여경기 일정에 돌입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 팀마다 치러야 할 경기 수는 물론 일정도 들쭉날쭉하다.

KIA는 이번 주 대전 한화전을 시작으로 광주 SSG·kt, 창원 NC전이 예정돼있다. 순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팀과의 경기 많은 만큼, 성적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

순위분수령에 있는 현재 KIA는 타선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달 경기 기간 팀타율 5위(0.268)를 기록했고, 홈런은 36개로 가장 많았다.

우선 김선빈이 지난달 23경기에서 88타수 34안타 3홈런 20타점 타율 0.386으로 맹활약했다. 꾸준한 안타를 생산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어가는 베테랑의 모습이다.

선발진에서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5경기 3승 1패 32이닝 평균

자책점 1.41)만이 연일 호투를 펼치고 있다. 양현종(5경기 2승 1패 25.2이닝 평균자책점 3.86)도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

그러나 올라(5경기 평균자책점 6.26), 김도현(4경기 평균자책점 9.50), 이의리(5경기 평균자책점 10.61)가 심각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

불펜진은 더욱 심각하다.

8월 KIA 불펜진의 평균자책점 4.83으로 9위다. 성영탁, 전상현, 최지민 등은 충분히 좋은 투구를 선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뒷심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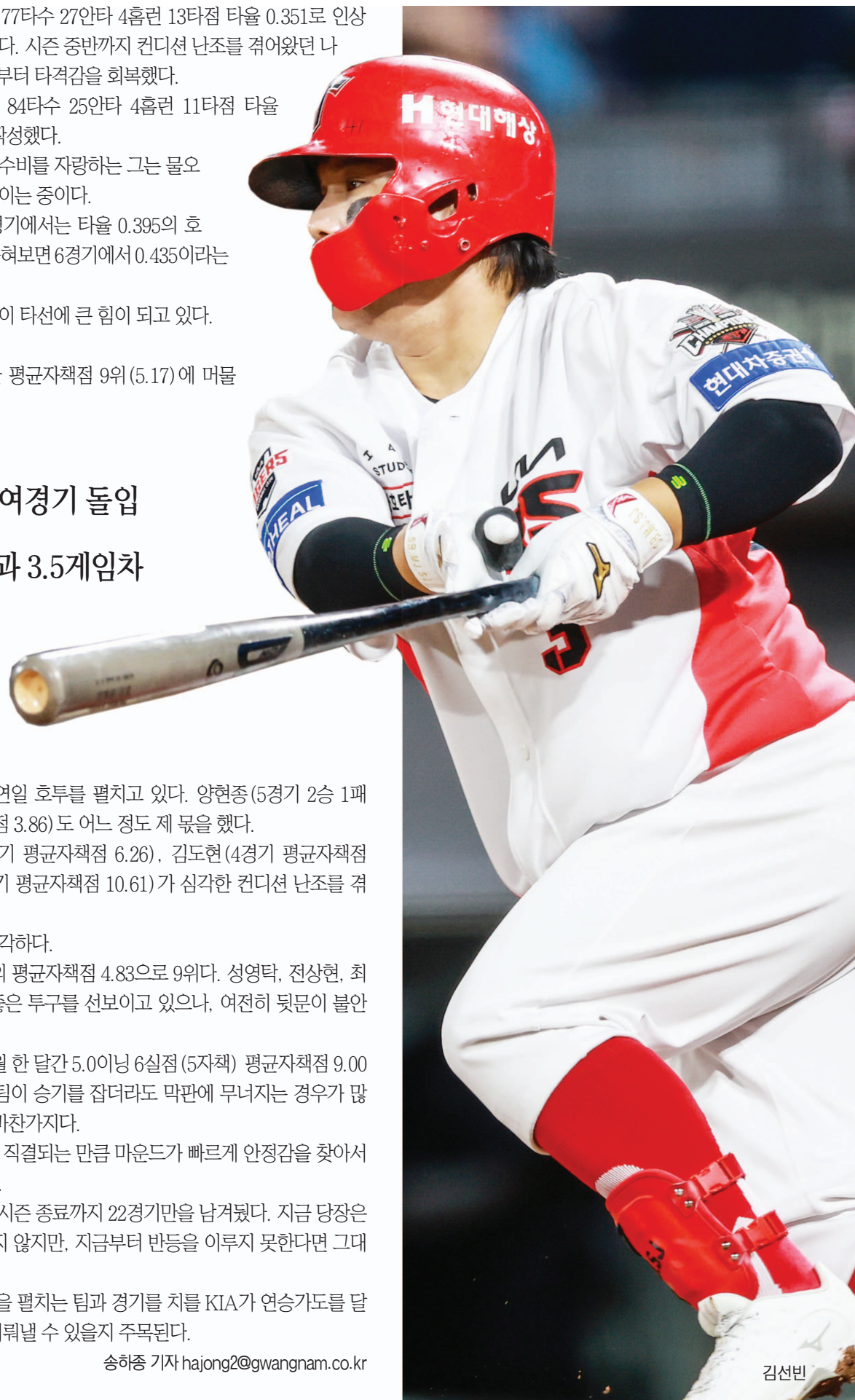
정해영의 경우 8월 한 달간 5.0이닝 6실점(5자책) 평균자책점 9.00을 기록했다. 이에 팀이 승기를 잡더라도 막판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상우 역시 마찬가지다.

매 경기 순위가 직결되는 만큼 마운드에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특히 KIA는 정규시즌 종료까지 22경기만을 남겨뒀다. 지금 당장은 5위권과 격차가 크지 않지만, 지금부터 반등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번 주 5강 경쟁을 펼치는 팀과 경기를 치를 KIA가 연승가도를 달리며 순위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선빈



지난달 30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2025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연맹회장기 동 3개 획득

남일부 단체전 4강서 요넥스에 석패…혼북·남복 3위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2025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대회 남일부남부 단체전, 혼합복식, 남자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먼저 양병건, 김대환, 박세웅, 전성익, 박문선, 조승현이 팀을 이룬 광주은행은 남일부남부 단체전 16강에서 이천시청을 3-1, 8강에서 전주시청을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강호 요넥스에게 0-3으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지난 5월 광주은행 유니폼을 입은 박문선은 고희주(정관장)와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문선-고희주 조는 32강에서 이학범(당진시청)-김소희(MG) 조, 16강에서 최우석(이천시청)-전우이(구로구청) 조, 8강에서 김준영(국군체육부대)-김아형(시흥시청) 조를 상대로 각각 2-0으로 연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기동주-장은서(스카이몬즈) 조에 1-2로 석패, 동메달에 머물렀다.

박문선은 조승현과 팀을 이룬 남자복식에서도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8강에서 고성현-최성창(충주시청) 조를 2-1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지만, 4강에서 기동주-나광민(스카이몬즈) 조에 패했다.

이로써 광주은행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입상하며 팀 전력을 입증했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 감독은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훈련에 몰두했던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곧 열릴 전국체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고승환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 출전

한국육상대표팀 중 트랙 유일…“한국신기록 이상 목표·한계 두지 않아”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28)이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육상대표팀 중 트랙 출전은 고승환이 유일하다.

올해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출전을 준비해온 고승환은 기존기록(20초16)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세계랭킹포인트 순위에 따라 최근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출전 통보를 받았다.

진천선수촌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고승환은 1일 “지난주에 국가대표팀 코치님으로부터(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소식을 들었다. 기분은 좋았는데 선수권대회 출전이 아닌 더 큰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무뎠던데진 것 같다”면서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승환은 지난 6월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45를 기록, 자신의 개인최고기록(20초49)을 0.04초 당기는 등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또 최근까지 컨티넨탈투어 카자흐스탄 대회와 인도오픈 등 국제대회에 출전해 포인트를 쌓았고 도쿄행 티켓을 획득했다.

고승환에게는 2023 부다페스트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번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이다.

그는 “부다페스트 때 랭킹포인트제는 알았지만, 추가 선발제도를 몰라서 일정이 끝난 후 휴가를 보내다가 급하게 준비해서 출전했었다”면서 “이번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맞춰왔기에 준비한 만큼(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승환의 목표는 한국신기록(20초40) 이상이다.

그는 “한국신기록은 그냥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을 생각”이라며 “에선 탈락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목표는 더 높이 잡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는 꿈의 무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다”면서 “저도 이제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의미가 크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승환은 이날 제36회 KTFL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가 열리는 예천으로 향했다. 컨디션에 따라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대회 후 도쿄로 향한다.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3일 개막하며 고승환이 뛰는 남자 200m는 17일 예선, 18일 준결승이 열린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깨어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면서 “고승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온 만큼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